

지역민 편의 증진 위해 취약지역 여건 개선 힘써요

김영신 기자 | 승인 2023.11.23 21:45

산청 생초면 새뜰마을사업 준공식
20억원 투입... 길·배수로 등 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등 위험요소 제거



산청군이 지난 22일 생초면 노은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산청군이 생초면 노은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승화 군수와 군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관계자, 생초면 기관·사회단체장, 지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을 통해 군은 주택정비, 마을안길·배수로·재래식 화장실과 노후·불량담장 등을 정비하고 마을 안 위험 사면보강으로 마을 다목적공간을 확보했다.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해 미끄럼방지 포장과 하천변 가드레일 설치를 통해 지역민의 위험 부담을 제거했다.

특히 도로변 불량·노후 담장정비, 안전한 보행과 아름다운 미관 조성,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등 지역민 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에 전력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민 공모 선정부터 준공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에 사업이 잘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지역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